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기술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삼양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각종 자동차 부품이 운전을 더욱 안전하게 해줍니다

華嚴書院 山仰會報



筆巖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 061-394-0833
發行人: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金梓洙

河西와 文巖 金振宗의 理念

본회 연구위원 金 長 洙

본회 회보 제6호(2005. 11. 30)부터 하서선생과 교유했던 인물로 해남윤씨 四형제를 실은 바 있고, 제7호에 訥齋六峰.思庵에 대하여 연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영남사람으로 기묘당인인 문암 김진종과의 관계를 대략 서술하여 하서 사상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그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1541년(하서선생 32세)10월에 하서선생께서 弘文館 正字에 任命되기 전 3월에 “김진중, 김인후, 오겸, 백인걸, 김개 등 19명을 홍문록에 선임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조선시대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三司로 불리는 관부로 궁중의 경적관리와 文翰의 처리 및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학술 언론기관으로 관원 모두가 經筵官을 겸하기 때문에 관원을 보임하는 방법이 특별하여 3년에 한 번씩 홍문관의 현원이 타 부서 관원 중 학행과 가문, 자질과 신망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15명 내외를 선발 本館錄에 올려 吏曹를 거쳐 都堂의 의논을 통하여 도당록을 정하고 등재된 자를 보임시 충원하였으니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하서선생께서는 32세에 정자를 역임하시고 34세에도 副修撰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문암선생은 하서선생과 14년차 위인 1496년 생으로 영남의 선산 출신이니 그의 생애와 환

로를 살펴보고 이념의 동질성을 추정해볼까 합니다.

1. 김진중 선생의 생애와 환로

문암 김진중 선생의 字는 孝先 또는 孝善. 號 文巖(대동운부군옥), 門巖(하서집). 新齋(自號)는 기묘일시명현으로 史官의 記錄에 학문이 순수하고 충효대절이 있다고 평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다.

문암 김진중 선생께서는 이조 연산군 2년 서기 1496년에 의금부 경력 휘備공과 배위 영주 최씨 사이에 2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본관은 선산이다. 시조 고려삼한통합의찬공 신 순충공 김선공의 19세손이며 두문동 72현이신 농암 김주공의 6세손, 헌납 成慶공의 손자이다. 문암선생의 伯氏는 이조 중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헌납, 세자시강원 문학, 성균관사성을 지낸 振祖 公이시고, 중종조 좌의정을 지내고 학덕이 출중하여 시칭 동방부자로 성인과 다름이 없다고 일컫는 文戴公 김응기의 堂姪이시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심을 알 수 있다. 문암 선생께서는 선산 도계 文巖 아래 제궁촌에서 태어나셨고 나실 때부터 風骨이 秀異하셨다 하며 성장하면서 부지런하고 도량이 넓었다 한다. 일찍 학문에 힘써 성리학에 정통하시고 절개가 있어 모든 사람이 대인군자라 칭송하

였다 한다. 가학으로 학문을 성취하셨지만 경성 판관 재임시 남긴 遺詩로 보아 성균관 유학시 또는 다른 기회에 慕齋 金安國 先生에게 수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親炙가 아니더라도 私淑의 淵源임은 분명하다.

1519년 기묘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실 때 館中 유생 가운데 논학이 가장 정통하여 당시 용암 박운, 호재 허백기 등 영남의 문사들과 교유하였고 정암 조광조 선생께서 강도를 한결같이 함에 탄복하였다 한다. 기묘명현을 천거할 때에 선생은 사상이 견확하고 학문이 고명하여 충효대절이 있다 하여 被薦 되신분이다. 당시 소위 현량과의 추천기준을 살펴보면 器局, 才能, 學識, 行實과 行蹟, 志操, 生活態度, 現實對應認識 7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려고 120명을 선발하여 28명을 입격시켰는데 1위는 서경덕이며 선생은 12위에 기록되어 있으니 약관을 조금 지난 나이로 보아 출중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기묘사화 당시 광화문에서 유생 1천여 명이 조광조 등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할 때 선생은 물론 당숙 문대공의 처조카 순흥안씨 4형제(處順, 處謙, 處誠, 處謹)도 함께 참여하였다.

1528년 중종 23년(戊子) 33세에 문과 대과에 급제하여 殿試에서 을과(대과 급제자 33인중 4-10위)로 입격하였다. 정七品 승정원 주서에 제수되어 왕명출납의 주요 실무를 담당하였고, 臺諫의 실무를 담당하신 후에, 1531년 중종 26년 36세에 승정원 주서에 재임되어 왕명출납을 담당하였고, 그 후 공조, 예조, 병조의 좌랑과 세자시강원 문학을 거쳐, 1539년 중종 34년 44세에 사간원 정언(정6품)을 거쳐 헌납을 역임하였고,

1540년 중종 35년 45세에 사헌부 지평(정5품)을 역임하였으며, 1540년 중종 35년 45세에 경성 판관으로 보임되었으니, 당시 복도는 변방으로 서울과 멀어 수령이 음흉한 짓을 많이 행하고 함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혹은 야인과 내통하여 밀무역을 하거나 하인을 胡地로 보내 장사를 하는 등 貪汚가 날로 심하여 백성이 마음놓고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臺諫과 侍從을 지낸 사람을 번갈아 보임하여 이를 시정코자 하였다. 이 때 회령 판관에는 금호 林亨秀가 보임되었다. 경성판관으로 재임중 청렴공평하여 변방 사람들이 크게 감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541. 3월에 吳謙, 金麟厚, 許伯琦, 白仁傑, 李天啓 등과 함께 홍문록에 선임되었으며 의정부 檢詳과 오위의 僉正을 거치고, 1544. 10.17일에 홍문관 교리에 보임되었으며, 그해 11월에 중종 승하의 국상에 따라 설치된 殯殿都監의 郎官으로 실무를 주관하였으며, 1545년 인종 원년 50세에 弘文館 應敎에 제수되었으며, 이해 5.19일 부제학 나숙, 직제학 정언, 전한 이약해 등과 차자를 올려 거년에 하서선생께서 기묘제현의 억울함을 논변하였던 정황으로 정암 조광조 선생과 충암 김정선생의 복직을 상소하였다.

1545.(명종 원년) 을사 8월에 홍문관 응교의 직분으로 부제학 나숙과 함께 문정왕후가 內間에서 재상가에 密旨를 내려 前王의 신하에게 罪주면서 政院 경유하지 않고 애매하게 국사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사특한 길이 이로부터 열려서 간사한 자가 틈을 엮고있다가 끝내 사람의 화를 엮어 위망의 기미가 조석간에 박두하여 구제할 수 없을까 염려된다”고 통박하여 사화가 곧 미칠 것을 걱정하였다.

1545(명종 원년)을사 9월에 선위사(宣慰使)로 부산포(동래)에 내려가 對馬島主 安心東堂과 곡물 운반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맡았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대마도 왜구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자주 출몰하였고 그 전해(1544년)에도 사랑진에 쳐들어 왔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전에 체결한 조약을 개정요구한 대마도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고 그 후 1547년 丁未에 조약을 갱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책을 맡았으니 禮曹의 당상관이 말아야 할 직무가 주어진 셈이다.

1545(명종 원년) 을사사화로 인하여 문암 선생께서 파직 당하여 고향인 선산으로 낙향하였다. 을사사화는 왕실의 외척인 大尹(인종의 외숙 윤임)과 小尹(명종의 외숙 윤원형)이 같은 파평윤씨인데도 권력의 득실에 따라 반목 대립을 일삼다가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尹元衡이 鄭順明 李芑 林百齡 許磁 등으로 하여금 무고로 옥사를 일으켜 형조판서 윤임 이조판서 유인숙 영의정 유관 부제학 나숙 등 수십 명을 죽이고 귀양 보낸 土禍인데 선생께서는 世子侍講院 前歷과 內間 密旨 上疏 등으로 무고의 허물을 피할 수 없었으니 오히려 덧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리의 文巖 아래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新齋라 이름 하고 원내를 安樂園이라 하여 여생을 이곳에서 마치고자 하였다. 정미년에 유배지로 떠나기 이전까지 이곳에서 草欄 權文海(대동군 부윤옥의 편저자. 문암의 女婿) 등 영남의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1547년(명종2년) 정미 가을. 52세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발생한 정미사화에 연루되어 순창 쌍치적곡(탕곡이라고도 함)으로 유배되었다.

그 해 9월에 당시 부제학 정언각이 시집간 딸을 전송하고 양재역에 들렀다가 壁書(요즘의 대자보)를 발견하고 이를 조정에 고하였으니 그 내용은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 등이 권세를 놓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보고만 있을 것인가”를 붉은색 글씨로 써서 문정왕후와 이기, 정순명 등 간신배를 규탄하는 벽서인 바 조정에서 을사사화의 피화자 잔당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간흉을 없애는 데에는 종자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문정왕후 등의 주장)면서 송인수 이약빙은 賜死하고 이언적 정자 노수신 정황 유희춘 김난상은 絶島安置하고 권응정 권응창 정유침 이천계 권물 이담 임형수 한주 안경우는 遠方付處하고 문암 선생을 비롯한 백인걸 조박 등은 付處하였으니 엄청난 사화이다.

그 당시 정승 정순명은 문암 선생의 처외삼촌으로 配位(令人 全州李氏)를 은근히 통하여 많은 뇌물을 주면 먼곳의 귀양살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선생께서 들으시고 크게 놀라며 말씀하시기를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소인배에 구걸하여 살기를 바랄 것인가?(聞之하고 愕然하여 男兒死則 死矣어니와 豈可乞憐於小人以求活耶아)하고 거절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간신배로 낙인되어 죽은 뒤 선조 때 관직을 추탈당하였다.

1557년 丁巳 3. 22일에 문암 선생께서 62세를 향년으로 하여 流配地에서 身患으로 卒하시니 유해를 선산 제궁 案山 坤坐에 모셨다.

유배지에서 五言4韻 300 餘首를 남겼으나 임

난兵火로 失傳되었다.

1570년(선조 3년)에 東阜 李浚慶의 복관직 상소로 伸冤되어 職牒을 돌려받았다. 이때 史官이 평하기를 “김진중은 학문이 순수하고 바르며 충효대절이 있다”라고 하였다.

1647년 인조 25년 영남 유림들이 선산군 해평면 창림리 송산서원을 건립하여 문암선생을 추배(主壁은 文戴公 金應箕 先生)하였다.

1998년 4월에 순창의 유림들이 문암선생의 사적비를 향교 입구에 세웠다.

2. 순창 쌍치 謫居

대전통편 刑典의 推斷條에 의하면 죄인을 귀양보낼 때 安置와 付處가 있는데 안치는 귀양간 곳에서 일정한 곳에 주거를 제한하는 것으로 외딴 섬에 보내는 絶島安置와, 죄인의 감시와 동정을 파악하기 용이한 本鄕安置, 그리고 집둘레에 탕자나무 가시울타리를 조성하는 圍籬安置가 있는데 탕자나무가 전라도 해안에 많아 위리안치자 대부분이 남해안으로 유배되었다 하며, 付處는 3등 이하 죄인에게 내리며 원방부처는 경기, 충청, 황해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거주를 지정하되 구체적인 유배지는 관찰사가 결정하며 가족과 동거가 허락되기도 하였으나 歸鄕은 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순창에서 유배 생활은 귀래정과 강천사 등지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귀래정의 고령신씨는 재종형수(諱世孝: 필자의 16대조의 배위)가 고령신씨로 申末舟 선생의 형 문충공 신숙주의 曾孫女라서 사척지간이요, 하서 선생과는 기묘당인의 이념적 동지로서 인종을 호모하였으며, 1515년 을해에 담양부사 박상(朴祥) 순창군수 김정(金淨) 두분이 中宗妃愼氏復位上疏

를 기초한 역사의 현장이 이곳이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출입한 흔적이 있을 뿐 두문정좌의 세월을 보냈다고 여겨진다.

눌재선생 등의 상소문 내용은 신비의 복위뿐만 아니라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등 삼훈의 관직을 삭탈하라고 주청하였으며 벽두에 조선조 도학 연원이 포은, 야은, 강호, 필재로 이어 왔음을 밝혔으니 도학연원에 대한 최초의 정설이며 고봉 기대승의 논사록에 실리기 50여 년 전이다. 그 상소로 인하여 두 사람은 귀양가고 결국 기묘사화의 촉매로 이어졌으니, 하서선생의 점암촌 우거와 함께 전라도 순창으로 유배지를 정하신 연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문암 선생께서 순창 쌍치 적곡에서 출입을 자제하고 세상 사람의 일에는 뜻 두지 아니하기를 11년이라고 하였으니(杜門靜坐 無意人事者 11年 - 묘갈명) 간신배가 득세한 조정 아래서 어찌할 수 없는 체념의 세월을 시로 달래면서 보냈던 것이다.

귀래정에는 문암선생의 시가 현액되어 있는데 오언율시와 칠언절구의 운통이 바로 옆에 현액된 하서 선생의 시와 똑같아서 두분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에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어느 분이 次韻하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선생의 유배 생활 11년에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다.

3. 하서 김인후 선생과의 관계

하서 선생과의 관계를 추적하여 보면 하서 김인후 선생은 1510년생으로 선생보다 14년 아래 나이이지만 하서께서 학문이 출중하여 홍문관, 세자시강원 등에 출사하시어 경연의 검토관을 자주 맡았으니 당시 조정에 계신 선생과 지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세자시강원에서 인종이 등극하기 전에 인연이 각별하였으며 선

생과는 홍문관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같이 일하였고 세자시강원에서는 伯氏 진조 공과 함께 형제가 시차를 두고 인종과 사제의 인연이 있으니 인종이 등극하여 홍문관 응교에 승차함은 충직한 신하로 예우한 것이리라. 하서선생 또한 스승인 崔山斗(호 新齋, 기묘명현)와 비슷한 연령의 기묘명현이신 선생을 상당히 예우하신 것이 그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하서선생 문집이 사후 9년에 초간되어 증보를 거듭하여 전하고 있는데 문암의 또다른 호가 신재인데 신재로 호칭하지 아니하고 문암(文巖)으로 호칭하는 까닭이 최산두 선생과 분별을 취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종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경왕후 윤씨 소생으로 생후 7일 만에 장경왕후가 승하하고 계비인 문정왕후에 의해 성장하였는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명종)을 낳은 후로는 여러차례 세자인 인종을 죽이려 하였으며 인종 또한 중국의 춘추시대 진나라 태자 신생처럼 효행이 독실하여 계모의 뜻에 따라 아들도 아니 둘 정도였으며 어느날 문안차 찾아간 인종에게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대접하니 웃으며 먹고 왕위에 오른지 9개월 만에 승하하였으니 인종과 인연이 있는 신료들은 모두 비통해 하였으며 사화가 미칠 것을 미리 염려하였었다.

더구나 1547년 늦가을에 문암께서 순창으로 유배되어 적거하실 때에 하서선생 또한 벼슬을 그만두고 쌍치 점암촌(속칭 매기바위)에 우거하면서 훈몽재를 짓고 제자들과 강학하였으니 서로간의 거리가 도보로 2시간 정도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의기가 투합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하서선생께서 1549년 부친상을 당하고 격년으로 모친상을 당하여 복상을 위해

장성 황룡 본제에 계실 때에도 쌍치와 거리는 도보로 한나절 길이니 종종 만남이 있었으리라.

하서문집에 의하면 선생과 관련한 글이 五言律 11首 輓詩 5首 七言律 1首 모두 17수로 지면 관계상 모두 실지 못하지만 그 제목만 열거하여도 剛泉寺留別孝先 1首, 寄孝先 3首, 謝門巖致鯽魚膾獻親病遂愈 1首, 門巖所致銀鯽放活盆中仍感有詠 1首, 挽門巖 3首, 次歸來亭門巖韻 3首(이 글이 歸來亭에 현액되어 있음), 次門巖韻 2首, 挽門巖 2首(1紀 후), 贈孝先 七言律 1首이며 그 내용을 모두 음미하여 보면 句句節節이 선생을 존경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자연과 술을 벗 삼아 슬픔을 이겨내고 풍류의 경지에서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자족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선생께서는 슬하에 자녀도 없이 令人 전주이씨와 30년을 금슬 좋게 지내셔서 婚姻應作好 家室兩相宜 州載偕琴瑟 終身恨別離라고 표현하였다. 하서선생의 輓詩 한편에 문암과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어 소개하면

만문암(挽文巖) (1557년 丁巳 三月 二十二日)

(其一) 蚤歲看頭角 中年賦鹿鳴
功名塞馭馬 身世楚江萍
千里優遊地 三春浪默情
淒涼薤露曲 腸斷不堪聽

(기일) 조세간두각 중년부녹명
공명새수마 신세초강평
천리우유지 삼춘민목정
처량해로곡 장단불감청

일찍 두각을 나타내셨고, 중년에 녹명시(소아 녹명편으로 왕이 신하에 잔치하며 노래하는 시)

를 읊었도다. 공명이란 게 세웅의 말이라면 신
세는 초강에 부평초구려. 천리라 실컷 노닐 이
땅에 춘삼월 말없이 묻히는 그 정. 처량하다 해
로의 노래가락은 애달퍼 차마 듣기 어렵구려.

(其二) 十載憂君切 孤魂一夢驚
天涯客未返 山岬涕潛零
每到相忘地 何堪永訣情
繁雲飄遠目 衰髮益星星

(기이) 십재우군절 고훈일몽경
천애객미반 산반체잠영
매도상망지 하감영결정
번운표원목 쇠빈익성성

십년 세월 임금(인종) 생각 간절하더니. 한꿈
에 놀랬구려 외로운 그 녀. 하늘가의 나그네라
돌아올 수 없으려니 산언덕에 눈물을 몰래 쏟누
나. (고향에 돌아가) 서로 잊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영결의 정을 어찌 견디란 말이고. 멀리 나
부끼는 문계구름에 눈길 돌리고, 엉성한 귀밑머
리 더욱 희어지누나.

(其三) 問學淵源正 觀瞻氣象恢
餘功到衆藝 累世育英才
莫問平生事 空留萬古哀
松聲歸路迴 白首病中回

(기삼) 문학연원정 관참기상회
여공도중에 누세육영재
막문평생사 공류만고애
송성귀로형 백수병중회

학문을 논하면 연원이 바르시고, 인물을 보면
기상이 너그러웠지.(유배지의)남는 힘은 온갖

藝에 이르렀고. (조정에서) 대를 이어 영재를 길
러냈거늘. 평생의 사업일랑 문지를 마소. 속절
없이 만고에 남긴 슬픔뿐. 솔바람 고향(경상도
선산)길은 멀기도 한데 하얀 머리 병중에 돌아
가누나.

하서선생께서도 그후 삼 년이 못 되어 1560년
정월에 돌아가셨으니 영결의 정을 끝내 견딜 수
없었던 것인가?

4. 결어

우리나라의 유학이 중국 한나라의 訓詁學, 당
대의 詞章學, 송대의 理學 등의 영향으로 조선
초 억불숭유의 통치이념으로 발전하여 성종조
까지는 사장학이 실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연산
군의 패륜정치 이후 중종대부터 우주와 인생 도
덕을 논하는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당시
에 지금처럼 지역갈등이 있지 않았지만 勳舊와
士林의 이념적 갈등이 조성되는 시기라서 두 분
의 이념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특히 하서선생과 영남인사와의 交遊는 湖堂
修契錄의 李滉 정유길 등 소수인 점에 비추어
조정에 계실 때에 인간적 이념적 교유관계를 돈
독히 하신 두 분의 인격을 우리러 사모할 뿐입
니다.



사람 열전-소쇄원의 바람소리 이종범(조선대학교수)

河西先生の 詩

유월 이십삼일 밤에

삼경에야 달이 처음 솟아올라서
희고 흰사구름 끝을 벗어나더니
오동나무 가지에 어리비치어
비끼인 그림자가 창에 드누나
정신 맑아 문득 놀래 몸을 일으켜
옷 여미고 어정어정 걸어나가니
湖山은 해맑아라 고요 깃들고
밤빛은 멀리 보니 희미하구나
방과 마루 휘영청 밝은 빛 쌓여
마음 간장 굵이굵이 환히 뚫리네

三更月初上 皎皎出雲端
隱映梧桐枝 斜影入窓寒
神清忽驚起 整衣步盤桓
湖山湛寂寥 夜色迷遠觀
房櫳政滿輝 炯澈明心肝

무제(無題)

좋은 나무 元氣에 함초롬 젖어
우뚝 솟아 가지 멀리 들치었구려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떠받고
비 이슬은 자양이 풍족하여라
어진 바람 온 누리를 불어 떨치자

만물이 우줄우줄 춤을 추더니
눈과 서리 갑자기 휘몰아치니
곧은 등걸 시들어 꺾어지누나
구슬피 울어대는 못새 소리
날고 난들 어드메 의지할건고
저물녘에 몽게몽게 구름이 일어
부슬부슬 장마비 흠날리더라

佳木涵元氣 亭亭揚遠枝
上承日月光 雨露繁華滋
仁風振海宇 萬類方怡怡
風霜忽飄簿 直幹還摧萎
衆鳥聲啾啾 飛飛何所依
黃昏暮雲起 霖雨來霏霏

눈을 노래하다(詠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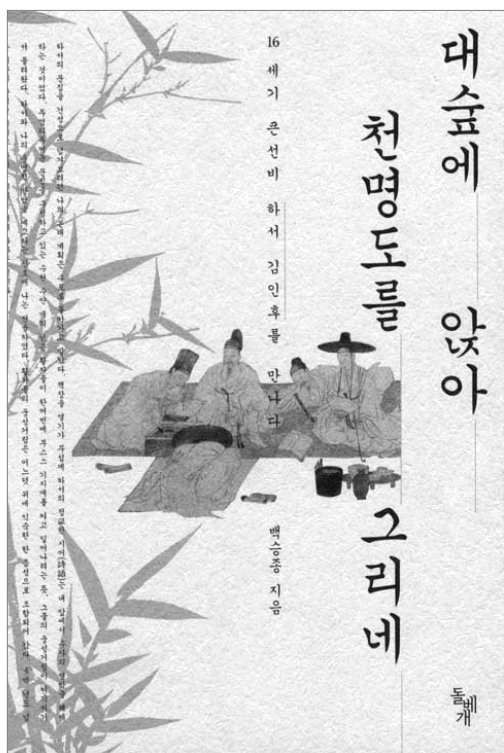
한밤중에 바람 몹시 위엄 떨치어
천지마저 뻗으락삼키락 하네
추월 풍겨 빗발에 마구 엉기고
흰 빛 날려 운근이 부숴지누나
지는 달을 침범해라 산란한 형세
새벽 노을 무색하이 탐스런 빛깔
이불 낀 채 선비는 게을리 일어나
문을 열자 어련애 놀래 떠드네
보석이 자국 날까 밟기 무섭고

옥으로 된 동산인가 보며 의심해
 뜰 가지는 다투어 분을 섞는데
 대 포긴 부질없이 은빛을 번득여
 희고도 조출할사 심담이 맑고
 아득코 흐릿하여 눈 어지럽네
 하늘과 아울러라 흰 베 깔리고
 별 세겐가 여번이 흩어졌노라
 얼핏 보니 무지개 기운 올라라
 참으로 달 흔적이 무색하겠군
 가볍게 드리우니 먼 뒤편 어둡고
 새로 개니 가까운 마을 밝으니
 여위게 선 상산사호 노래 부르고
 말라 뻗어 낙양 원안 누워 있구려
 무너지면 목욕하는 갈매기 같고
 치솟으면 수레 탄 학이로구려
 언덕 골짜기 형세 따라 깊고 높은데
 지붕 담은 들쭉날쭉 일정치 않아
 쪼고 새김 마다하여 생긴 그대로
 신의 힘은 배흔에 들어 있구려
 잠깐 사이 신선의 경계 열리고
 심상한 곳에도 다 절승한 경지
 공공색색 환화가 어리둥절코
 비고 희어 진원을 깨달았노라
 만 형상 생긴대로 옮겨지지만
 천 번 달라도 본으로 돌아가누나
 부화스런 치레는 다 쓸어버리고
 태소의 질은 더욱 두터웁구려
 학사는 진나라 길 찾아를 가고
 장군은 채성 문에 들어가누나
 상을 만나 말을 세운 날이라며는
 대를 찾자 배 띄우는 저녁이로세
 괴롭 즐김 참으로 사정 다른데
 한망을 어찌 함께 논한단 말고

그 어찌 한 방안에 맞대고 앉아
 조용히 전언을 뇌임만 하리
 손탐엔 마음 어찌 싫어지리오
 정문에는 도가 더욱 존엄하도다
 종이창이 밝아라 책상 조출코
 불 오래 때니 흙방 따뜻하여라
 겨울이 온화하니 양덕을 느끼고
 해가 장차 풍년이라 성은 입었네
 조정에선 옥축을 잘 조화하고
 여염에선 아침 햇빛 짙어졌다오
 영곡을 종당에 만날 것이니
 희가를 번거롭게 부를 게 있소
 광하를 고루 가진 즐거운 얼굴
 구중 궁궐 두들겨 가슴 펼치리
 이 소원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시궁창에 떨어져도 원한 없겠네

夜半風威緊 乾坤入吐吞
 飄寒凝雨脚 霏白碎雲根
 亂勢侵殘月 繁輝失曉暉
 擁衾儒懶起 開戶稚驚喧
 踏怕瓊爲跡 看疑玉作園
 庭柯爭粉糝 叢竹謾銀翻
 皎潔清心膽 茫迷眩眼魂
 兼天鋪縞練 特地散瓊璠
 恍見騰虹氣 眞將理月痕
 輕垂遙暗嶂 新霽近明村
 瘦立歌商皓 枯僵臥洛袁
 崩傾鷗浴浪 竦峙鶴乘軒
 呀豁隨陵谷 參差任屋垣
 天成謝琢鏤 神力在胚渾
 造次仙區闕 尋常勝概存
 色空迷幻化 虛白悟眞元

萬象移前稟 千殊返本源
 浮華文盡掃 泰素質彌敦
 學士尋秦路 將軍入蔡門
 逢湘立馬日 訪戴刺船昏
 苦樂真殊致 閒忙豈共論
 爭如就一室 兀座識前言
 孫榻心何厭 程門道益尊
 窓明棗几淨 烟足土床溫
 冬暖懷陽德 年豐荷聖恩
 巖廊調玉燭 閭井負朝暄
 郢曲終當遇 姬歌敢自煩
 歡顏均廣廈 披腹叩重闥
 此願如能遂 顛溝亦未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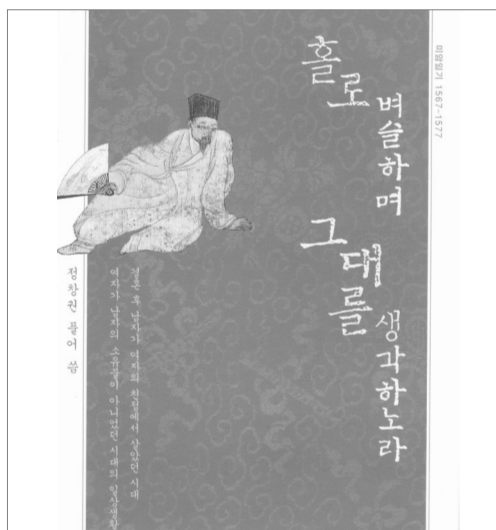


白承鍾 지음(서강대 교수)

河西先生 詩 朗讀 詠海棠(해당을 읊다)

美人政倚東風晚 粧成露出臙脂紅
 纖枝輕動翠羅裾 當軒一笑餘意濃
 芳心掩抑獨無處 宛轉不忍依蒿蓬
 悵望佳期綵雲裏 青鳥不來誰先容
 一朝君王選美色 浩態應當傾六宮
 後學(綠洋) 朴景來 謹奉朗讀

미인이 늦으막에 동넉 바람 기대앉아
 단장을 끝마치니 붉은 연지 드러나네
 가는 가진 한들한들 깃소매를 펴럭이며
 난간 앞에 빙그레 남은 뜻 무르익네
 꽃다운 그 마음이 붙일 곳은 어디메뇨
 고운 태도 차마한들 봉고에 의지하리
 오색 구름 쌓인 속에 좋은 기약 있으련만
 청조가 아니 오니 소개할 자 뉘란 말고
 하루 아침 임금님이 미색을 뽑는다면
 저 맵씨는 응당히 육궁을 기울일 걸



정창권 풀어 씀

大學에서 가려 뽑다

修己治人

옛날의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던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이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으려는 이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정성되게 하였고, 그 뜻을 정성되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앎에 이르게 하였나니, 앎에 이르게 됨은 사물을 구명함에 있다.

사물을 구명한 뒤에야 앎에 이르고, 앎에 이른 뒤에야 뜻이 정성되이 되고, 뜻이 정성되이 된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화평케 될 것이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몸 닦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 데도 끝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으며, 그 두터이 할 바의 것을 얹게 하고, 그 얹게 할 바의 것을 두터이 함은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을 근본을 앎이라 이르고, 이것을 앎의 지극 함이라 이르는 것이다.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先修其身, 欲修其身者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先致其知, 致知在格物 格物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 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未治者否矣. 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 此謂知本此謂知之至也.

正心修己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자신에 노여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바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래서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所謂修身在正其心者身有所忿懣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修身在正其心.

▶ 2006년도 夏季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士林政治와 河西 金麟厚-白承鍾 교수 강연

2006년도 山仰會 하계 총회 및 학술 강연회가 7월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1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10시 20분에 朴來鎬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文廟에 배례를 하고 하서 선생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이준영 감사가 백록동 학규를 낭독하였다.

朴鍾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강 유한상 어른의 격려사가 있었다. 朴鍾達 회장의 회의 진행으로 산양회 회무에 대한 토의를 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16세기 큰 선비 河西 金麟厚를 만나다-를 저술하였던 백승종교수 초청 강연이 있었다. 백승종 교수는 <朝鮮前期의 士林政治와 河西 金麟厚>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150여 유림들이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백교수는 河西先生이 낙향하여 詩와 술로 마음을 달래며 조용히 고향에 은거하는 듯 했지만 역사상 최초로 목숨을 걸고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들의 신원 소청을 올렸던 河西先生이 끝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仁宗에 대한 節義를 지킴으로써 국고가 바닥나서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를만큼 부패했던 明宗代의 척신정치에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특히 강조하였다.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들의 士林政治의 理想을 그대로 이어받아 당대의 큰 선비 퇴계 이황, 남명 조식과 함께 나라의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압력을 가하여 부패한 척신정치가 물러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 山仰會報 7집 발간

山仰會報 7집이 발간되어 백승종 교수의 논문과 함께 회원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산양회보 7집에는 한남대 철학과 金玉淵 교수의 <河西天命圖에 나타난 天人觀>, 弔比干辭를 비롯한 하서선생의 詩, 韓愈의 師說, 河西와 訥齋와 六峯과 思菴, 산양회 소식, 필암서원 소식,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지혜, 예절 등 알찬 내용이 실렸다.

▶ 山仰會 임원회의

산양회 임원회의가 朴鍾達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4일 광주 향교 앞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2006년 정기총회와 결산 보고서 준비를 논의하고 학술 발표 강사 선정과 산양회보 8집 발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06년도 정기총회는 12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으며, 학술 강연 연사로는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와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 가운데 요청하기로 하였다.

▶ 편집위원 회의

1월24일 오후 2시에 대동문화에서 산양회보 제8호 편집회의를 가졌다. 회보 편집 방향과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이 날 회의에는 박래호 총무, 이병현, 김재수, 김장수 위원이 참석하였고 양희택 재무는 김병근, 이준영 감사에게 회계 감사를 받았다.

▶ 10월 1일 秋享祭 봉행

필암서원에서는 지난 10월 1일 (음 8월 13일) 민선 4기 유두석 장성군수, 박종달 산양회장, 金宅洙 문정공 도유사를 비롯한 각 기관장과 전국 유림 및 본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향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부산 유림 金兌桓氏 씨의 집례로 이 고장 보성 출신 李重載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초헌을, 전북 유림 吳龍根씨가 아헌을, 전 영암군수 金澈鎬씨가 종헌을 맡아 헌작하였으며, 보성 유림 朴炯坤씨가 陳設을 맡았고 충청도 淵齋 선생 종손 宋永文씨가 大祝을 하였다.

祭享을 마친 후 李重載 초헌관이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先生”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젊은 선비로 목숨을 걸고 己卯名賢의 신원을 처음으로 소청하고, 죽는 날까지 節義를 지켜 明宗代의 척신정치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한 河西先生이야말로 오늘날 정치인들이 본받고 우리러야할 고결한 선비라고 주장하였다.

▶ 본원 선비 學堂 각종 교육활동 매진
서예전, 유적지 탐방도

본원 선비학당 月火水木班 25명은 明心寶鑑, 小學, 大學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 재현을 위한 전라남도 특별지원 사업으로 土日班을 열고 있는데, 13명이 11월 19일 제2회 수업을 수료하였고, 28일에는 문화센터 21세기 하우스에서 유생 서예전을 열었다. 10월 25일에는 유두석 군수의 환송을 받으며 경기 일원 유적지 탐방길

에 올라 여주 尤庵 先生 大老祠 秋享을 참배하고, 명성황후 생가, 正祖王陵, 사도세자능을 참배하였다.

▶ 제3회 선비정신 체험학습 교육

본원 선비학당은 전남 도청과 장성 교육청의 도움으로 장성군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게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제3회 선비정신 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盧江朴來鎬, 變公 高冕柱, 牧井 金盛洙씨가 수고하였다.

▶ 필암서원 봉심 이어져
한강포럼 회원 40명 봉심

지난 10월 22일 서울의 한강포럼 회원 40여명이 필암서원을 방문하여 祐東祠를 봉심하였다. 김용원 회장, 금진호 전 장관을 비롯한 일행은 알묘제를 마치고 河西先生과 필암서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전중심 님의 요청에 따라 본원 유생들과 相向揖을 한 다음 白鹿洞學規를 낭독하고, 하서 선생의 神道碑銘에 대한 박래호 학장의 강의를 90분 동안 들었다.

▶ 전남 시군 典校 유도회장단 봉심

지난 11월 16일 전남 각 市郡 典校와 儒道會長團 일행이 장성향교 寄宇天 전교와 李相鏞 회장의 안내로 필암서원 우동사를 봉심한 후 필암서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대구 향교 청년 유도회원 40명 봉심

지난 11월 19일 秋泰鎬 회장, 李昌煥 회장이 인솔한 대구 향교 청년 유도회원 40여명이 필암서원을 봉심하였다. 보성 유림 李性學씨와 장흥 유림 朴景來氏가 동행하였으며, 본원 임원 양희택, 이충원과 유생 15명이 일행을 환영했다.

▶ 盤龜書院 유림 35명 봉심

지난 11월 21일 반구서원 유림 35명이 金宗式 원장, 金炳千 전 원장, 有司 權赫吉, 여성유도회장 辛花也님의 주선으로 우동사를 알묘하였다. 양희택, 이충원, 임기옥 등 유생들이 환영하였다. 반구서원은 울산광역시 울주시 언양읍 대곡리에 있는 서원으로 鄭圃隱을 主享으로 李晦齊 鄭寒岡 세 분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 漢詩 백일장 제 4집 간행

河西先生을 추모하는 전국 한시 백일장에 참가하였던 시를 모아 간행한 한시 백일장 제 4집이 12월 1일 간행되었다.

▶ 俞군수에게 望帖 수여

본원은 지난 10월 12일 俞斗錫 군수에게 진신장의 望帖을 수여하였다.

대안으로서의 유교 철학

이제 사람들이 동양 문화의 근간인 동양 철학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토인비는 21세기에는 중국인 내지는 동아시아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로 훌륭한 철학적 유산, 곧 ①유교의 인도주의 정신, ② 유교와 불교의 합리주의 정신, ③ 도가의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면 자기 좌절을 초래한다는 사고, ④ 중국철학이 강조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조 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버마스는 “유교와 불교 등의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이 왜 외국 이론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한국의 미래인 대안을 외국에서 찾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공자에 의하여 창시된 유교는 생의를 가지고 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태극 곧 기로부터 음과 양의 두 기가 생겨나고, 음과 양이 감응하여 오행을 낳고, 오행이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한 몸(一體)이므로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생의로서의 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욕망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 있으므로 수기를 통하여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발휘하여 성인 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속세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윤리 강령을 제시하였다.

- 19페이지에 계속 -

經典에 나타난 窮理, 盡性에 대한 小考

李 昆 煥

본회 부회장

우라들이 周易을 工夫하는 方法으로 窮理와 盡性の 두 가지가 있는데 現實的으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窮理 工夫라 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靈의 세계에서 未來를 알아내는 것이 盡性 工夫라고 본다.

太極의 無極부터 理致에 따라 한가지씩 꾸준히 追求하여 根本의인 理致를 알아내고, 하늘의 理致, 땅의 理致, 사람의 道를 綜合하여 研究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天賦之性 卽至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性品을 極盡히 하여 그 原點으로 回復하는 것이다. 이러한 工夫를 함에 있어 책이 없어도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닦고, 마음이 하나로 統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窮理 工夫를 演繹의 方法이라 하면 盡性 工夫는 歸納의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또 窮理 工夫가 一生二法으로 形而下學이라면 盡性 工夫는 二而一法으로, 形而上學이라 할 수 있다.

窮理, 盡性에 대하여

(1) 窮理는 事物, 人事의 法則에 대한 探求와 그것이 人間에게 內在化된 것으로서의 自己本性을 發揮하는 것의 一貫性을 나타내는 말이다. 周易의 說卦傳에 나오는 말로 「理致를 窮究하고

性品을 다한다.」라는 뜻이다. 易에서도 이 말은 다음에 이어진 命에 이른다. (至於命)이라는 말과 蓍草를 가지고 卦를 求하는 법이 곧 사람들로 하여금 義와 命에 安敦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밝히는 重要한 言及이다. 여기에 哲學的인 의미를 附與한 것은 역시 宋代의 性理學者들이다.

대개 性理學에서는 窮理는 知의 領域에 속하며 盡性은 行의 領域에 속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子息된 立場에서 父母에게 孝道를 해야 한다는 當爲와 原理에 대한 探求는 窮理에 속하고, 그것을 實踐하는 것은 盡性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兩者가 어떠한 順次性을 갖는가 혹은 無媒介的으로 統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學者에 따라 意見を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程頤는 굳이 順次를 附與하자면 窮理가 盡性보다 先次的이라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根本的으로는 兩者가 無媒介的으로 統一되어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窮理가 곧 盡性이라고 理解하는 것이다.

張載는 程頤의 見解가 너무 巨視的이라고 批判하고 兩者는 特히 實踐的인 立場에서 볼 때 儼然한 順次가 存在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窮理에서 自己의 本性을 다하는 것으로 보았다. 自身의 本性을 다하는 것에서 萬物의 本性을 다

하는 것으로, 萬物의 本性을 다하는 것에서, 天道에 이른다고 보았다.

朱熹 역시 程頤의 見解가 너무 巨視的이라는 張載의 指摘에 同意하였다. 특히 物理에 대한 探求로서의 窮理와 盡性의 一貫性에 注意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는 그 理解의 角度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窮理와 盡性이 궁극적으로 統一된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2) 窮理는 廣範하게 事物의 理致를 窮究하여 正確한 知識을 獲得하는 것을 말한다. 所謂, 致知, 格物, 博文, 約禮의 뜻이기도 하다.

程伊川은 學問은 致知에 있다고 하고 讀書에 의하여 義理를 明確하게 하고, 古今의 人物을 批判해서 是非를 分別하고 或은 事物에 折衝하여 그 마땅함에 處하게 됨을 必要로 한다고 주장했다. 朱子는 이것을 繼承해서 細說하여 天下에 理 外에는 事物이 없다고 하고 今日 一件을 마치고 또 明日 一件을 窮究해서 오랫동안 학문을 쌓아서 드디어 脫然히 貫通한 바가 있다고 하고, 적은 데서 큰 것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미친(及)것이라고 說하고 그것을 工夫하는 데는 博學, 審問, 慎思, 明辨 등을 列舉했다.

(3) 結局 朱子는 學問하는 길은 窮理보다 먼저 하는 것이 없다고 하고 窮理의 要領은 반드시 讀書에 있다고 했다. (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朱子 行宮便奏札)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程朱學에서 窮理로 事物의 道理, 原則을 研究하여, 一貫된 理致를 찾는 일이며 窮理, 盡性은 天地自然의 理法과 사람의 性情을 研究하는 것이라 했다. (以至於命)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우리는 天地理致則太極의 原點부터 시작하여 天理, 地理, 人道를 紆明하고 天性을 極盡히 하여 貫通하는 것이라는 點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孔子는 作易함에 天地의 理致가 一致되어 易이 더불어 水準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易이 가지고 있는 偉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卽 위로는 天文을 觀察하여 하늘의 變化하는 形象 가운데 晝夜가 있는 것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考察하여 높고 깊은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리므로 어둡고 밝은 두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萬物의 根源을 미루어 보아 모든 것이 시작에서 끝으로 돌아가는 것을 觀察함으로써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精氣는 모여서 物이 되고, 사람의 魂은 흩어져 鬼神이 되는 情狀도 알 수 있다.

本性을 極盡히 하는 聖人의 道는 天地와 같이 높고도 넓다. 그러므로 사람의 道德인 仁과 서로 어긋남이 없고 하늘과 땅과 더불어 서로 같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또 天地에 四時가 運行되고 森羅萬象이 存在하여 各自 性命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그 道는 天下의 百姓을 救濟할 수 있다. 그러므로 過誤를 범하는 일이 없고, 權道를 부러도 한편으로 치우치고 흐르지 아니하니 天命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된다. (繫辭傳 四章)

孔子는 말씀하시기를 「옛날 聖인이 周易을 지으실 때 天地神明을 그윽하게 밝히기 위하여 著草를 내시었다. 여기에서 陰陽의 變化를 觀察하여 卦를 定하고 이 變化가 剛柔를 發揮하여 六爻가 나오게 된 것이니 사람이 天道와 地德에 조화하고 柔順하여 人間社會에 있어서 義理 관

계를 세워 놓았다. 卽 物理을 窮究하고 人性을 極盡히 하여 모든 것의 根源이 天命에 到達한다고 하였다. (設計傳一章) 참으로 聖人의 深衷을 살피기에 感服할 따름이다.

(4) 窮理 盡性에 대하여 周易 本義에서 나타난 理論을 요약해 본다. 朱子는 說卦傳 一章과 繫辭傳上 四章에서 나타난 窮理, 盡性, 至命을 認識論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邵康節 역시 窮理, 盡性, 至命을 認識論적으로 다루고, 易 窮理하고 盡性하여 命에 이른다고 하고 理는 物의 理이고, 性은 天의 性이며 命은 理와 性에 處하는 것이라고 했다. 吳康은 窮理, 盡性, 至命을 現代科學인 方法으로 解釋하여 理를 天地萬物을 構成하는 根本要素로 보고, 性을 萬物이 하늘로부터 賦與받은 本性性으로 보고 命은 窮極의 法則으로 본다. 따라서 窮理는 對象의 成分을 分析하는 것이고, 盡性은 對象의 性質을 觀察하는 것이고, 至命은 現狀의 目的을 實現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朱子의 窮理, 盡性, 至命에 대한 理論을 살펴본다.

(가) 窮理一

窮理의 對象과 方法으로는 「우리러 天文을 觀察하고, 구부러 地理를 觀察한다. 그러므로 幽明의 原因을 알고, 처음을 根源하여 끝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알며, 精과 氣는 物이고, 魄이 遊한 것이 變이 된다. 따라서 鬼神의 情狀을 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朱子는 窮理의 對象은 幽明, 生死, 鬼神이 되고, 그 方法은 觀察이다. 즉 精이 모이면 魄이 되고, 氣가 모이면 魂이 된다. 그러므로 人物의 定體가 精이라고 하고 魄이 내림에 이르면 氣가 흩

어지고, 魂이 놀라서 가지 않음이 없다. 내린 것은 屈曲이니 形體가 없는 까닭으로 鬼라고 한다. 遊는 퍼서 測定할 수 없는 까닭으로 神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朱子는 魄은 精에 속하고, 魂은 氣에 속하는데 兩者의 變化를 말하면 屈曲 즉 收縮되어 形體가 없어지는 것을 鬼라고 하고, 퍼서 즉 測定할 수 없는 것을 神이라고 한다. 變化되는 것은 魄이요 變化의 모습은 神이라는 것이다. 이 變化의 兩面인 鬼神이란 理論은 張橫渠의 二氣良能說에서 알 수 있다. 朱子 는 이 二氣良能說을 自然 變化의 兩面的인 現狀이라고 공감하였다.

다음 張橫渠의 二氣良能說을 簡單하게 記述해 보면, 二氣良能은 屈伸往來하는 自然의 變化의 兩面的인 現象을 말한다. 伸은 神이요, 居는 鬼이다. 氣가 바야흐로 오는 것이 陽에 속하니 神이고, 氣가 되돌아가는 것이 陰에 속하니 鬼이다.

결국 朱子가 말하는 窮理란 自然의 變化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다고 한다.

(나) 盡性一

朱子는 窮理가 極致에 이르면 盡性の 단계에 到達한다고 말한다.

「天地와 더불어 같다. 그러므로 어기지 않으니 智慧가 萬物에 두루하고, 道가 天下를 救濟한다. 그러므로 지나치지 않는다. 옳으로 가도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즐기고 命을 아는지라 근심하지 않고 흠에 平安하고 仁을 敦篤히 한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朱子는 「聖人의 盡性の 事」라고 하고, 「天地의 道는 仁, 知뿐이다.」라고 한다.

朱子は 仁, 知의 근원은 性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盡性하는 데는 仁하고 知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朱子の 性論을 알아본다. 朱子가 性論을 完成하는 다섯가지 근거를 보면 「詩經의 周頌의 維天之命」, 「書經의 商書의 湯誥·周書의 泰誓」, 「中庸의 天命之謂性」, 「孟子의 盡心 知天」, 「周易繫辭上에 一陰一陽之謂道, 繫之者善也 成之者性也」라는 것을 根據로 人間 本性의 根源이 하늘이고, 하늘의 모습은 一陰一陽하는 것이고, 그 自體를 道라고 하고, 하늘이 人間에게 本性을 준 것을 命이라고 하고, 그것이 人間에게 들어와 性이 되며, 그 本性은 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性論이다.

以上으로서 朱子は 仁은 하늘과 땅이 生物을 創造하는 마음(天地生物之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把握하는 것이 盡性이라고 한다.

(다) 至命一

(至命은 窮理, 盡性과 관련된 理致이므로 잠시 언급해 본다.)

窮理와 盡性の 결과는 至命으로 나타난다. 「天地의 變化를 본떠 確定하여 지나치지 아니하고 萬物을 극진히 이루어 남기지 않으며 晝夜의 道를 통하여 아는 까닭으로 神은 方所가 없고 易은 禮가 없다.」라는 것을 朱子は 「聖人의 至命의 事」라 한다. 그 至命에 이르기 위해서는 中道를 파악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中道라는 것은 空間의 狀況의 變化에 따라 規定되는 正中과 時間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規定되는 時中和 行爲의 主體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中道는 時間的으로는 現在, 空間的으로는 여기, 主體로서는 人間 個個人의 道理에 맞는 가장 適切한 原理와

行爲를 나타낸다. 이것을 바로 알았을 때 朱子は 至命한 것이라고 한다.

以上으로서 綜合하면 易學的으로 窮理는 變化의 本質을 把握하는 것이요, 盡性은 變化하게 하는 그 原因을 자각하는 것이고, 至命은 變化하는 가운데 「여기, 지금, 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周易本義研究)

(5) 性에 대하여 四書中心으로 略記해 본다.

性은 사람의 本性, 天賦之性 또는 至善의 性品이라고 한다. 卽 先驗의이고, 普遍的이나 常情된 人間의 本性이다. (先天的性質). 「論語陽貨」에서는 本性은 사람마다 서로 가깝고 習性은 서로간의 差異가 멀다. 다시 말해서 本來의 性은 個人的으로 그다지 큰 差異가 있을 수 없고 비슷하나, 後天的인 習慣으로 教育이 人間을 크게 差異나게 한다. 「子曰性相近也 習相遠也」.

孟子는 性善說을 提唱하였다. 그러나 孟子以前에 世碩은 「한 人間의 本性은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도 있다.」(性有善 有惡論)고 主張한다.(孟子告子上)

그 後에 「한 人間의 本性은 어떠한 사람의 本性은 善하고, 어떠한 사람의 本性은 惡하다.」(有性善, 有性不善論)는 主張이 나온다.(孟子告子上). 告子는 「한 人間의 本性은 善하지도 惡하지도 않다.」고 한다.(性無善, 無不善論). (告子曰... 人性之無分於善不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告子上).

告子는 人間 本性의 善惡은 先天的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後天的 習染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러한 主張은 人間의 自然的 本性만을 強調하고 社會性을 無視한데서 緣由한 것이라 하여 孟子는 告子가

生理的 本能을 性이라고 (告子曰食色性也) 理解한 점을 批判하고, 人間的 社會性, 道德性에 注目할 것을 強調하여 性善說을 提唱하였다. 人間에게는 四端이 있는데, 이는 各各 仁義禮智 즉 四德의 表現이라고 하였다.

以上 理論에서 宋代의 程頤와 朱熹가 學問의 方法論으로 居敬, 窮理를 重視함에 따라 宋代의 性理學을 받아들인 朝鮮朝의 學者들도 이를 重視하였다. 學問의 道는 다른 것이 없고 聖賢의 말을 討論하고 그 義理의 精隨를 求하여 모름지기 心身에다가 體驗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窮理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學問의 道는 天理의 正을 얻는데 있다고 하였다.

때로는 말하기를 「學問을 하는 根本은 먼저 敬을 주로 하여야 한다. 屋漏(神에게 祭祀 지내는 곳:神)에게 부끄럽지 않은 工夫가 가장 重要하다.」(爲學之本 先主於敬 不愧屋漏工夫最緊要也)고 하고, 工夫와 行動 하나하나에 잘못됨이 없이 조심을 하여 남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힘쓰라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經典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많고 여러 先生들의 說에도 疑心 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적어 놓고 工夫하는 資料로 삼았다.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先正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議論을 하는 것은 不可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答한다. 「義理를 論하는 것은 天下의 共公한 일이고 先賢도 許諾한 것이다. 諸公과 더불어 討論을 하여 是非를 바르게 하고자 할 뿐이니 무엇이 해롭겠는가?」(沙溪慎獨齋全書)

이렇게 當時 學者間에 問答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선생의 말이라 疑心이 나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여 完全하게 理解를

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當時 朝鮮朝 性理學者들의 學問의 傾向은 居敬, 窮理를 爲主로 하고 各自의 主觀대로 工夫를 하는데 때로는 博學하고 審問하고 慎思하고 明辨하고, 獨行하는 方法을 通해서 徹底하게 窮理하여 知識을 얻고자 하였다고 한다. (韓國人物 儒學史)

上記 以外에도 先賢들의 學習方法을 살펴보면 朱子는 “程頤의 涵養에도 敬을 使用하고 進學에는 致知에 있다”라는 見解에 立脚하여 已發未發說을 定立하면서 主敬으로써 그 根本을 세우고 窮理로써 그 知에 나아간다.”라는 基本的인 學習態度를 提唱하여 居敬窮理의 方法論을 完成하였고, 退溪는 朱子의 主敬論을 根本하여 窮理의 方法으로 知識을 쌓았음을 指摘하면서 마음으로 一段 敬의 자세를 갖추는데 主力한 다음 事物의 참된 法則을 窮究하고 또 이 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誠意, 正心, 修身을 하고 나아가 齊家, 治國, 平天下까지 推達하려는 것임을 力說하면서 窮理는 바로 本心의 體를 밝히고 本心の 用에 通達하게 하는 所以라고 主張한다.

栗谷은 擊蒙要訣에서 반드시 聖人이 되기를 期約한다고 하고, 修己내지 修養의 目標가 聖人됨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工夫하는 方法으로 居敬, 窮理, 力行을 提示하였다. 初歩의인 小學工夫에서는 먼저 收斂을 한 후 窮理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小學의 工夫에서는 먼저 格致窮理가 된 후 收斂을 해야 한다고 하여 배움의 水準에 窮理와 居敬의 先後를 달리하고 있다.

一菴은 善惡天理論을 主唱하면서 聖人이 되자면 誠과 敬으로 人格의인 修養을 해야 한다고 하고 朋友間의 責善을 強調하면서 學問을 誠으로 하고 律身은 敬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즉

誠으로 窮理하고 敬으로써 居敬하는 것을 自身의 持論으로 삼았다.

花潭은 大學을 배우면서 致知在格物에 이르러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하기를 "學問을 함에 먼저 格物을 하지 않으면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天地萬物의 이름을 모두 써서 벽에 붙여 놓고 날마다 한가지씩 窮理格物하는 것이다. 한 가지 事物을 궁리하여 通하고 나면 다시 다른 事物에 대하여 窮究하고 萬若 그 理致가 理解되지 않으면 거기에 온 精神을 쏟은 나머지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길을 걸어도 가는 方向을 알지 못하며 며칠씩 잠을 설치는가 하면 때로는 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그 알아내지 못했던 이치를 깨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先賢들의 工夫하는 方法論을 略記하였지만 이를 通해 볼 때 後人들은 窮理 盡性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位置에 있다는 것을 어느 程度 알 수 있다. 窮極적으로 窮理 속에 盡性이 있다고도 보여진다.

以上으로 窮理盡性에 대하여 몇가지 說을 綜合해보면 先賢들이 工夫하는 方法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天理와 人間關係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工夫 態度는 一生을 通하여 各自 나름대로 實踐努力함으로써 人間社會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교는 개인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이며 염세적이고 출세간적인 도가나 불교와는 달리 -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외의 다른세계(이데아의 세계, 천국, 극락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락이나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로 모든 만물을 일체로 보아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체,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으며, 대립과 투쟁을 지양하고 타협과 화합을 지향한다. 셋째로, 만물은 하나의 기로 말미암아 생성 소멸하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이므로 그것을 인간의 효율적 편의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넷째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기를 통해서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여 남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로 인생의 최고의 경계는 물질적 외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내면적인 것에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로 신의 명령이므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확장하여 친척과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자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윤리를 권장하였다. 끝으로, 유교는 매우 과학적이어서 본질적으로 과학을 용납하며, 유교의 세계관을 오늘날 첨단과학이 함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일치한다.

조선대학교 철학과 정진일 교수의 논문
〈서구문명의 세계화와 유교 이념〉에서 뽑음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本貫, 雅號〉

경기	성남시	金相元	서구	金永煥	함평군	이문행
충남	대전시	金權中	서구	柳鍾吉	함평군	정종인
	대전시	安俊彬	남구	申玉시	함평군	김규채
부산광역시		金兌桓	남구	김득환	함평군	노광섭
경북	경주시	孫寧達	광산구	李泳鎬	함평군	金柱煥
전북	전주시	安進會	전남	담양군 金鍾甲	장성군	장성읍 金光珍
	남원시	吳龍根	전남	담양군 高光宣	서삼면	李忠源
	정읍시	金容煥	전남	나주시 朴弘淳	서삼면	崔洙烈
광주	동구	姜大榮		나주시 崔泰均	황룡면	朴昌燮
	동구	姜大旭	전남	보성군 安泰淳	동화면	金辰煥
	동구	張源碩		보성군 廉東玉		
	동구	金正準	전남	함평군 이진행		

이상 34명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會長	朴鍾達	200,000
副會長	張源碩	500,000
서울삼양사	金在億	3,000,000
光州 西區	金相德	200,000
慶北慶州市	孫寧達	100,000
蔚山金氏大宗會	金達洙	100,000
光州光山區	李泳鎬	100,000
大田	宋俊彬	100,000
상임부회장	金容淑	200,000
全南鄉校典校단	親睦會	50,000
		4,550,000

알림

1. 본회 제18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요일) 10 : 0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강당(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
- 발 표 자 : 이종범(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정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 하시고 전화(019-618-2084 김상원)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 貫:	雅 號:	生 年 月 日:
住 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 職:	學 歷 및 經 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靄)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靄靄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 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旻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 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絳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 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靄靄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 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靄靄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大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 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추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 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하였다.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 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 정치와 하서 김인후’ 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하였다.